

# 속너복 치수표기법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도 조사연구

## A study of consumer's preference for various size description system for women's garments

천 종 숙

연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의류환경학과

###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whether consumer's characteristics affect their preference of size labeling systems. The survey included 443 women 20 to 64 years of age. The results show that the consumers' preferences of five size labeling systems were different significantly. Subjects strongly preferred the size label in use for many years at the market. The consumers' preference for various systems was different by resident area, educational level, and body types of the subjects. The system with information on body measurements was preferred by the resident in the metro city area than the resident in the small city. The simplest system was strongly preferred by the subjects having no difficulties on purchasing ready-to-wear garments that reasonably fit their bodies. The subjects belonged to the low educational level strongly preferred the simplest system.

### I. 서론

의류 치수 표기에 포함된 정보의 합리적인 이용과 소비자와 생산자 또는 유통업자 사이의 제품의 품질에 대한 정확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의류제품의 표준화된 품질 표기방식은 제품의 치수, 섬유 혼용율, 세탁관리법, 생산업체의 연락처 등을 포함시키고 있다<sup>1)</sup>.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만족은 제공된 정보가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이고, 제시된 정보가 소비자에게 정확히 전달되었을 때 극대화 될 수 있다. 특히 정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치수관련 정보의 제공은 기성복 치수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를 향상시켜 의류 치수 불만으로 발생하는 상품재고량의 감소로 생산자 및 판매자의 이윤 증대에도 기여하게 된다<sup>2)</sup> 문자나 숫자기호로 표기하거나 신체 계측치수로 표시한 의류의 치수표는 기성복을 구매할 때 소비자가 구입하려는 의복을 직접 착용하여 치수를 확인하기 전에 그 치수의 의복이 자신의 신체 계측적 특징에 부합하는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준다<sup>3)</sup>. 즉 기성복을 포함한 공업제품의 설계에 인체계측자료가 충분히 활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소비자나 유통관계자에게 생산자의 설계의도가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소비자와 생산자의 대화의 도구인 제품의 품질표시는 이해하기 쉽고 사용하기 편리하게 제작되어야 함이 인식되고 있다<sup>4)</sup>. 미국 의류 유통시장에서의 의류치수표기방식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선행연구는 대부분의 속너복이

### 의류에 표기된 품질 관련 정보탐색 경향

의류품질 관련 정보탐색 경향은 응답자가 의류 구입시 의류에 부착된 의류치수, 섬유혼용율, 세탁 방법에 대한 품질표시를 확인하는 태도에 따라 측정하였다. system A는 섬유혼용율이나 의류치수를 확인하지 않는 집단이 확인하는 집단보다 높게 선호하였고(61.4%, 70.4%), system C는 섬유혼용율을 확인하는 집단이 확인하지 않는 집단보다 높게 선호하였다(29.2%, 19.3%).

### 맞음새를 중요시하는 부위

의복의 맞음새를 중요시하는 부위에 따른 소비자 집단의 의류치수 표기법의 선호도는 바지에 대한 부위별 맞음새 중요도에 따른 집단별 치수표기 방식 선호도를 비교한 결과, system C는 밑위길이를 중요시하는 집단이 높게 선호하였으며 system A는 바지길이를 중요시하는 집단이 높게 선호하였다.

### **III-3. 의류 치수 탐색의 응이성과 치수호칭방법의 선호도**

자신에게 적절한 치수의 의류 구입의 응이성에 따른 집단 별 기성복 호칭법의 선호도에 대한 차이를 비교한 결과, 기성복 구입시 자신에게 맞는 치수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는 집단과 어려움이 없다는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검정되었다( $P < .01$ ). system A는 치수찾기에 어려움이 없는 집단이 더 선호한 반면 system C는 치수 구입에 어려움을 겪는 집단이 더 선호하였다. 이는 자신의 신체치수에 맞는 의류구입에 어려움을 경험한 구매자들이 의류 구매시 자세한 치수관련 정보의 필요성을 더 크게 느끼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 **III-4. 신체치수와 치수호칭방법의 선호**

신체치수에 따른 집단별 호칭방법의 선호도의 차이는 신체의 대략적 크기 구분에 이용되는 키와 체중, 의류치수체계에서 기본신체치수로 이용되는 가슴둘레, 허리둘레, 엉덩이둘레에 따른 집단간의 차이로 구분하여 비교한 결과 키와 가슴둘레, 엉덩이둘레에 따른 집단별 호칭방법의 선호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신장이 크거나 작은 집단은 중간키 집단보다 system A의 선호도가 낮았다( $P < .05$ ). system A는 엉덩이치수가 작은 집단과 가슴둘레가 작은 집단이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 $P < .05$ ,  $P < .01$ ).

## **IV. 결론 및 제언**

속내복의 치수 관련 정보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여 여러가지 의류치수 표기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수도권과 지방도시 거주자를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의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응답자의 대부분은 90년 이전에 제정되어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사용되고있는 간략한 치수표기방법(system A)이 신체치수 정보를 포함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높게 선호하였다.
2. 그림이나 인체 계측방식이 포함된 방식(system D, E)은 낮은 선호도를 나타내었다.
3. 고졸이하 학력자는 대졸이상의 응답자보다 system A는 높게 system C는 낮게 선호하였다.
4. 수도권 거주자가 지방 중소도시 거주자보다 인체계측치와 부위를 표기한 방법(system C)은 더 높게 선호하였고, system A는 더 낮게 선호하였다. 이러한 지역간의 차이는 평균 교육수준 뿐 아니라, 의류 유통시장 특성을 포함한 의류소비의 구조적 특성에서도 원인을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다.

### III. 결과 및 논의

유통시장의 숙녀복 치수표기 방법과 ISO에서 제시한 치수표기 방법을 포함한 5개 방법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57.4%가 공업진흥청에서 1990년도 이전에 제시한 방법(system A)을 가장 선호한다고 응답하였다. 1990년 개정된 의류 치수표기 방법들(system B, C)에 대한 선호도는 기본신체부위와 계측치를 각각 제시한 방식(system C)은 21.6%가 가장 선호한다고 응답하였고, 기본신체부위의 제시 없이 계측치만을 나열한 방식(system B)은 14.8%가 가장 선호한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신체치수를 그림과 함께 표시하는 방법(system D)과 신체치수의 측정방법까지 제시한 의류치수표기 방식(system E)은 각각 3.3%와 2.9%의 응답자만이 가장 선호한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통신판매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류치수 표기방식의 선호도 조사의 결과<sup>12)</sup>와 근접하나 그림표시와 함께 신체 기본부위의 치수를 제시한 표기방식을 가장 선호한다고 응답한 미국 중서부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sup>8)</sup>와 비교하면 본연구의 응답자들은 미국의 소비자들에 비하여 의류제품의 치수표기표에 신체계측치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적게 느끼고 있다고 해석된다. 이러한 연구 결과의 차이는 양국 소비자들이 경험하는 의류치수 규격의 차이에 일단의 원인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즉, 새로운 의류치수규격(system B, system C)과 축약된 의류치수 규격(system A)을 혼용하는 한국의 의류 소비자의 구매 환경에 비하여 간략한 치수 표기방식(system A)을 주로 이용하여야 하는 미국 성인 여성 소비자들은 그들의 현행의 치수규격의 불합리성에 대한 강한 개선의 요구가 있는 것이라 생각된다. 반면 한국의 의류치수 규격의 경우 1990년이 후 치수규격에 신체치수가 표기되는 새로운 방식과 종전의 간략한 방식이 혼용되는 유통시장의 특성에 따른 영향으로 간략한 치수 표기방식의 불합리성의 개선 요구 정도가 강하지 않다고 생각되며, 여러가지 치수표기방식의 혼용에 따른 정보의 혼란으로 한국의 소비자들은 익숙한 치수표기 방식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해석된다. 또한 이외에도 통신판매를 이용한 의류구입 방법의 일반화 정도의 차이를 포함한 양국의 의류 유통시장의 특성과 여러가지 문화적 차이에서 원인을 찾아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III-1 인구통계적 특징과 의류치수 호칭법 선호도

응답자의 인구통계적 특징이 의류표기 방식의 선호도에 미치는 영향은 응답자의 교육수준과 거주지에 따라 치수표기법의 선호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system A는 고졸이하의 학력 소지자가 대졸자보다 더욱 선호하였으며, 지방도시 거주자가 수도권지역 거주자보다 더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P < .001$ ). 신체부위를 그림으로 표시하는 system D는 대졸 이상의 학력 소지자가 고졸 이하보다 더욱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P < .001$ ). system C와 system E는 수도권 거주자가 더 선호하였다( $P < .01$ ). 이와 같은 차이는 수도권과 지방 거주자 간의 생활환경, 의류제품 유통구조, 구입처, 교육수준의 차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그러나 응답자의 연령이나 직업 또는 월평균수입의 수준에 따른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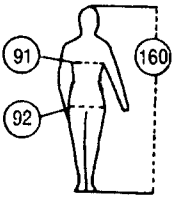
#### III-2. 의류구입에 관련된 사항과 의류치수 호칭법 선호도

의류구입과 관련된 소비자의 특징에 따른 소비자의 기성복 호칭법의 선호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의류제품의 품질관련 정보의 수집 태도, 맞춤새를 중요시하는 부위에 따라 집단을 나누고 각 집단이 선호하는 호칭법을 비교하였다.

## II-2. 측정도구

본 연구의 측정도구로 사용된 설문지는 여러가지 의류치수 표기법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도를 조사하는 항목과 소비자 의복구매행동과 인구통계적 특성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의류치수 표기법의 종류는 소비자들이 의류 상품 구입시 경험하게되는 기존의 표기법 및 개정된 표기법과 ISO에서 제시한 의류 치수 표기법을 포함시켰으며 Yoon(1992)에서 제시한 분류법을 참조하여 5가지 유형으로 하였다 (표 1). 인구통계학적 특징은 응답자의 거주지, 나이, 결혼여부, 교육정도, 가계수입등으로 조사하였으며, 구매행동은 의류품 구매시 구입하려는 제품의 치수, 섬유혼용율, 세탁방법등을 확인하는지 여부와 자신에게 맞는 치수의 의류 구입의 용이성 등으로 제한하였다. 신체적 특징은 신장, 체중, 엉덩이둘레, 허리둘레, 가슴둘레, 몸무게에 대한 신체치수를 응답하도록 하였다. 본 조사는 1994년 10월부터 1995년 2월에 수도권과 경상남도에 위치한 지방 중소도시에서 실시하였다.

표1. 의류치수 표기법의 종류 및 특징

분류	(예)	특징
system A	호칭 5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장 축약된 형식</li> <li>1990년도 이전부터 숙녀복 치수 표기 방식으로 사용</li> </ul>
system B	85-90-1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체부위의 제시없이 신체치수(cm)를 연이어 나열</li> <li>1990년 이후 숙녀복 치수표기 방식으로 사용됨</li> <li>KS K, ISO 의류치수 표기 규격</li> </ul>
system C	가슴둘레 85cm 엉덩이둘레 90cm 신장 160cm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각각의 신체부위와 신체치수(cm)를 기술하는 방식</li> <li>KS K, ISO 표준 의류치수 표기 규격</li> </ul>
system 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각 신체부위의 치수를 그림과 함께 표시하는 방식</li> <li>KS K, ISO 표준 의류치수 표기 방식</li> </ul>
system E	가슴둘레 85cm (가슴의 가장 발달한 부위 둘레치수) 엉덩이둘레 90cm (엉덩이의 가장 발달한 부위 둘레치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각 신체부위의 치수와 각 신체부위의 치수 계속 방법 설명</li> </ul>

신체치수를 표기하지 않는 치수표기방식을 채택하고 각 의류 생산업체가 같은 호수의 기성복에 대하여 제각기 다른 신체치수를 적용하는 등 표준치수 체계가 확립되지 않아 소비자들이 기성복 구입 시 겪게되는 치수에 대한 혼란스러운 경험은 소비자들에게 심리적인 비용부담을 느끼게 한다고 하였다<sup>2,5,6)</sup>. 또한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치수에 대한 의사소통의 어려움은 치수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으로 인한 반품, 재고품의 증가로 생산 및 판매업자에게 경제적 손실을 가져다 준다<sup>7,8)</sup>. 의류 치수 선택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새로운 의류치수규격의 표기방식의 개발을 위한 선행연구는 의류치수 표기에 포함된 정보의 종류를 달리한 여러가지 의류치수 표기법에 대한 미국 성인남녀의 표기방식의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의류치수의 표기방식의 선호도는 응답자의 성(gender)과 의복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고 주장하였다<sup>9)</sup>.

한국의 숙녀복 치수표기방식은 두자리 숫자로 표시되던 표기법(KS K 0051-1987)에서 신체 측정치를 표기하는 인체 계측적 의류치수표기법(KS K 0051-1990)으로 개정되었다. 예를 들어, 숙녀복 상의는 가슴둘레가 85cm, 엉덩이둘레가 90cm, 신장이 155cm인 여성을 위한 의류의 치수는 "85-90-155"로 표기하며 이것은 1987년도 규격의 "호칭 55"에 해당한다<sup>10)</sup>.

그러나 유통시장에서의 숙녀복의 치수표기방식은 1987년도의 규격과 1990년도의 규격이 혼용되는 과도기적 상황이며,<sup>11)</sup> 통신판매용 의류 치수에 대한 선행연구는 대부분의 통신판매 이용자들은 통신판매용 의류치수규격의 표기방식으로 1987년도 치수표기방식이 적절하다고 인식하였으며, 구미의 통신판매용 카탈로그에서 제시하는 방식인 인체계측 방식을 제시한 호칭방법을 낮게 선호한다고 하였다<sup>12)</sup>. 그러나 일반적인 소비자의 의류 치수 표기법에 대한 이해에 관한 실태 및 문제점에 대한 연구는 아직 활발히 연구 보고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제화된 치수 표기법의 국내 기성복 생산·유통 산업에서의 성공적인 정착 가능성을 검토하고, 소비자들에게 적절한 치수 표기법의 제공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며 소비자와 유통·생산자간의 올바른 의사소통에 도움을 주고자 여러가지 치수표기법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도 차이를 조사하였다.

## II. 연구방법 및 절차

본 연구에서는 현재 여성복에 사용 중이거나 사용가능한 의류치수 표기법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다양한 의류치수표시방법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도를 측정하고, 성인여성 소비자의 치수규격의 선호도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하였다.

### II-1.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수도권과 지방도시에 거주하는 성인여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표본의 연령은 20세부터 64세(평균 40.1세, 편차 9.9세)이었으며 최종학력은 대학교졸업 및 재학(45.4%)과 고등학교 졸업(42.3%)이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직업은 전업주부가 57.4%, 취업여성이 38.8%를 이루었다. 지역별 연령 및 직업분포의 차이는 크기 않았으나 학력수준은 수도권 거주자가 높았다. 설문지는 총 500부를 배포하여 응답내용이 불충분한 설문지를 제외한 443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수도권:N=228, 지방도시:N=215). 자료의 분석은 SAS 프로그램을 이용한 기초통계분석과 ANOVA test를 실시하였다.

5. 신장이 중간 치수에서 벗어난 경우와 체간부의 둘레치수를 대표하는 가슴둘레와 엉덩이둘레의 치수가 큰 집단이 치수관련 정보의 필요성을 더 느끼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6. 자신에게 맞는 치수의 의류 구입에 어려움을 경험한 집단과 의류 품질 관련 정보의 탐색을 중요시하는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system C는 높게, system A는 낮게 선호하였다.
  7. 본 연구의 결과를 미국 소비자들의 의류치수 선호도와 비교한 결과, 미국의 소비자들이 치수관련 정보의 제공을 중요시하는 반면 본 연구의 응답자들은 과거부터 사용하던 방식을 더 선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호칭방법의 유형의 차이와 의류구입방법을 포함한 소비문화적인 차이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된다.
- 본 연구의 제한점은 응답자 중 60세이상의 비율이 적고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의류품목에 따른 소비자의 의류표기 방식의 선호도의 차이를 고려해 볼 때, 의류의 소재의 신축성등 의류품목의 특성에 따른 치수표기법의 선호도의 차이점의 고찰이 제외되어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유의하여야하는 점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1990년도 이후 제정된 의류치수 표기방식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지역별, 소비자의 여러가지 특성별 집단을 대상으로한 의류치수 및 품질관련 정보의 이용 활성화 방안이 연구되어야함을 시사한다.

#### 참 고 문 헌

1. Brown, P.(1992), *Ready-to-wear Apparel Analysis*, Macmillan Publishing Co.
2. Sieben, W.A. & Chen-Yu, H.(1992), The Accuracy of Size Information on Men's Prewashed Jeans,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11(1)
3. Chun-Yoon J. & Jasper C.R.(1994), Development of size labeling system for women's garments, *Journal of Consumer Studies and Home Economics*, 18
4. 三吉滿智子(1995), 국민체위조사 설명회, *의류산업*, 18.
5. Fellingham, C.(1991), Truth in Fashion, *Glamour*, 159-160.
6. LaBat, K.L.(1987), *Consumer satisfaction/dissatisfaction with the Fit of Ready-to-wear clothing*,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nnesota, St. Paul
7. Workman, J.E.(1991), Body Measurement Specifications for Fit Models as a Factor in Clothing Size Variation,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10(1)
8. Brune, G.W. (1983). The shape of your customer, *Bobbin*, (1983, November)
9. Yoon, C.J. & Jasper, C.R.(1995), Consumer Preferences to size Description Systems of Men's and Women's Apparel, *The Journal of Consumer Affairs*, 29(2)
10. 이순원(1995), 한국공업규격 의류치수규격 의류치수규격 개선의 필요성, 국민 표준 체위조사 설명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11. 천종숙(1995), 바지류를 중심으로한 여성 기성복의 치수에 관한 연구, *대한인간공학회지*, 14(2)
12. 박경화, 천종숙(1996), 통신판매의류의 치수에 대한 조사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0(1)
13. Yoon, C.J.(1992), *A Methodology for Devising an Anthropometric Size Description System for Women's Apparel*,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